



외교부

일일 국제에너지·자원 동향

에너지과학외교과(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)

2022.2.10.(목) Vol. 2022-20호

[문의 : 02-2100-8474(8475), gecc@mofa.go.kr]

【신재생에너지】

□ 콜롬비아, 자국내 최대 풍력 발전단지 준공(주콜롬비아대사관)

- 콜롬비아 내 최대 규모(20MW)의 풍력 발전단지가 북부 라 과히라(La Guajira)주에서 준공되었으며, 현재 시범 운영에 착수하여 금년 1/4분기 내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.
 - 이사헨(Isagen)사가 개발, 2021.12월 완공되었고, 5.5헥타르 부지에 풍력발전기 10대가 설치되었으며, 투자액은 750억 페소(약 1천 8백만 달러) 상당
- Ivá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상기 준공식에 참석하여, 콜롬비아가 3년 전만해도 에너지 믹스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0.2%에 불과했으나, 2022년에는 16%를 예상하고 있으며, 2023년에는 20%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.
 - 또한, 2021년 자국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714 MW로서 2018년 대비 25배 증가하는 등 현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
- 한편, 콜롬비아 정부는 북부 바라키야(Barranquilla), 산타 마르타(Santa Marta), 리오아차(Riohacha) 등 풍력에너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은행 및 영국정부 등과 협력하여 해상풍력발전 로드맵을 작성중에 있으며, 금년 상반기 중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임.
 - 최근 광물에너지부 에너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콜롬비아 대표단이 덴마크를 방문하여, 덴마크의 해상풍력발전 경험과 노하우 등을 파악하고 협력방안을 협의

【석유가스】

□ 베네수엘라 1월 석유 수출, 지난해 9월 이후 최저치 기록(주베네수엘라대사관)

-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(PDVSA) 자료 등에 따르면, 베네수엘라의 1월 석유 수출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, 일 평균 416,387 배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4% 감소함.
 - 이란으로부터 희석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석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, 원유 품질 문제와 저장 탱크 및 항구 부두의 열악한 유지보수 상태로 인해 수출에 차질
 - PDVSA는 비선호 원유 등급의 육상 재고 급증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, 황과 물이 다량 함유된 저질의 희석원유의 총 재고량(부유식 저장 포함)이 850만 배럴에 상당
-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육상 재고 급증에 따라, 가용 유조선을 수출에 활용하는 대신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등 현재의 부유식 저장 방식에 대한 의존이 석유수출 급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음 /끝/